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인생

창 1:1-5, 행 19:1-7

‘이 세상이 처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고, 진화론은 아메바처럼 아주 작은 미생물이 점점 진화해서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진화론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낸 학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을 아주 우울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운명하기 몇 달 전, 어떤 부인이 병실에 누워 있는 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던 다윈에게 그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뭘 읽고 계신가요?”

그러자,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그렇게 말한 다음, 다윈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참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학문으로 보지 않고, 마치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저의 하찮은 학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반대되는 이론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찰스 다윈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창조론을 진리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두 번의 창조가 있었고, 지금은 세 번째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신 일이고, 두 번째 창조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과정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빛이 생겨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 만물은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모양도 없었거니와,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쓸쓸하기 그지없는 혼돈과 암흑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도,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어둔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두 번째 창조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 번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는 물과 불, 그리고 바람 등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옛 소련의 두 우주비행사가 우주비행을 한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어윈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에 들어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보아도 하나님이 계셨고,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은 계셨으며, 대서양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옛 소련의 가가린 우주비행사는 “우주여행을 아무리 해보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가가린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밝은 빛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거니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빛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과 생활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두우리라 착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직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체나 사회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야, 언제나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사회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런 교회와 사회는 새롭게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는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신다(막 1:6).”고 말하면서 “그분은 너무나 위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6).”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로써 세례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는 될 수 있지만, 그 물이 그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에는 성령의 각종 은사까지 받게 되어 여러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모든 장애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주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초등학교 여선생이 편지를 보내어 인생문제에 대한 상담을 청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며, 인생의 보람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말입니다. 회답을 받아보니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방을 정돈한 후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방안의 공기를 바꾸십시오. 그 다음, 잠을 충분히 자고난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여선생은 그 내용에 적잖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삶의 보람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문제가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바뀌 말한다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하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태워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욕심을 따르다 보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 장 5 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겸손히 따랐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 길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은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가 한창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욕심이 마음 깊은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받은 은혜가 떨어질 때쯤이면 그 숨어있던 욕심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여실 때에 그 흑암의 세계를 밝히셨던 빛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이 없는 캄캄한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과 성령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새롭게 살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와 같이 사는 인생을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표시로 받게 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 물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는 매일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늘 새롭게 되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아무리 가득 채웠더라도, 그 차의 기름 탱크에 구멍이 났다면 그 기름은 금방 다 새어나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가 그대로 있을 경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 인생에 틈과 구멍을 내 은혜가 새나가게 되고, 또한 인생 자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흥회라는 걸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성령의 영이/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 속에 죄가 많고 욕심이 많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빨리 빠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회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얼마 안가 그 은혜가 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 속에 너무나 많은 구멍과 틈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셨듯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서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해가지고서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근본은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성품을 지닌 듯 보이는 사람도, 사실 그 속에는 무섭고 더러운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성령께 우리 인생을 맡겨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매일같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가득하게 될 경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하늘로부터 언제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